

과학기술처 소식

과학기술 인력 장기수요 전망 발표

—2001년까지 人口1만명에 128명 水準—

지난 5월 24일 과학기술처가 발표한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인력의 장기수요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력(자연 및 이공계분야)이 급속히 증가, 오는 2001년에는 인구 1만명당 1백 2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과학기술인력은 인구1만명당 53명수준인 22만명이던것이 연평균 7.2%씩 증가, 오는 2001년에는 인구 1만명당 1백 28명 수준인 60만명 규모로 약 2.7배가 늘어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0만명의 과학기술인력중 전문대졸업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졸업자는 전체의 73%가량인 43만 8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학력별 분포를 분석해보면 박사학위소지자가 5만3천명, 석사 10만 2천명, 학사 24만 4천명, 전문대졸업자가 3만 9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볼때 오는 2001년까지 13년 동안 박사급인력의 연평균증가율은 11.2%, 석사급 12.1%, 학사급 8.7%, 전문대학졸업인력 수요는 5.3% 정도로 각각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전체과학기술인력중 연구개발에 직접종사하는 인력규모는 오는 2001년에 인구 1만명당 15만 5천명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87년 연구개발인력 5만 3천명에 비하여 3배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소식

日本同位元素研究發表會代表團派遣

당 협회에서는 日本아이스토프협회외 48개 학회가 공동주최로 1989년 7월 3일(월)~7월 5일(수) 일본동경國立教育會館에서 개최되는 제 26회 이공학의 동위원소연구발표회에 당 협회 임용규 회장을 비롯하여 학계, 산업계, 판매업계 인사로 구성된 11명의 대표단을 파견키로 결정하였다. 동 대표단은 7월 1일 출국하여 7월 7일 귀국할 예정이다.

동 연구 발표회에서 한양대학교 육종철 교수와 충남대학교 전재식 교수, 한국에너지연구소 김재복실장의 연구논문발표도 있다.

대표단은 다기자과 의료연구소 및 일본아이스토프협회 자체 연구소 폐기물시설과 일본 제약회사등의 산업시찰도 있다.

통신교육수강자 실험실습교육 실시

당 협회에서 주관하는 금년 RI 취업자일반면허시험 응시자를 위한 통신교육수강자의 실험실습교육이 5개조로 나뉘어 지난 6월 14일부터 3일간 대덕 에너지연구소원자력 연수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본 통신교육수강자는 반드시 실험실습교육을 받아야만 수료를 할수 있다. 수강자는 지정된 일자에 교육에 출석하기 바라며 원자력연수원에서는 수강자의 편의를 도모키위하여 개강 첫날에는 등교버스를 우선고속버스터미날에 배차를 시키고 있다.

1회는 1989년 6월 14일~6월 16일 53명 2회는 7월 5일~7월 7일 56명, 3회는 7월 12일~7월 14일 53명 4회는 9월 5일~9월 7일 53명, 5회는 9월 19일~9월 21일 53명이다.

※ 개강당일 통근차량 안내

- 서울 출발시 호남선의 고속터미날에서 07:00 대 전 유성행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함.(소요시간: 2시간 10분)
- 동 교육 당일 09:20분에 유성제주가든 맞은편 학우사앞에서 한국에너지연구소 통근특별차량이 출발함.(개강 당일에 한함)
- 개강 당일에 연구소차량을 이용못한 분은 버스정류장에서 130, 133번 버스를 타시고 한국에너지연구소 앞에서 하차 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고속터미날 승차지점			
유성제주가든	↑ 충 남 대 단 지	시내버스정류장 -(130, 133번) -(학우사 연구소 버스승차지점)	유성고속 터미날
고속I. C		유성 시내 →	
	공 주 ↓		

1) 수강생 준비사항

- 가) 강의 준비물(노트, 필기도구, 기타)
- 나) 반명함판 사진 1매
- 다) 주민등록증 지참

2) 기숙사 시설이 미비되었으니 이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益洙 前 會長 科學技術賞受賞

당 협회 박익수 전 회장(현 한국과학저술인협회 회장)이 제 22회 대한민국의학기술상 진흥상을 수상하였다.

박익수씨는 당 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협회 창립과 초창기 어려운 여건속에서 협회 발전과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진흥에 지대한 공로를 끼쳤다.

특히 우리나라에 과학기술평론이 전무한 시절에 과학평론과 科學史, 과학저술활동에 40여년간 투신하여왔다.

약 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과졸
 과학기술처 상임원자력위원 역임
 동양시멘트 판매(주) 사장 역임
 한국과학사학회회장 역임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과학저술인협회회장
 저서 : 과학의 철학
 과학의반사상
 창조시대와역사
 지성의 오솔길에서 외 다수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 22회 과학의날 기념식

제 22회 「과학의 날」 기념식이 4월 21일 상오 한국과학기술원 존슨강당에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비롯하여 과학기술계, 정부, 국회, 과학기술 진흥유공자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금년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4개부분 수상자와 과학기술진흥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常温核融合연구방향모색

—관련전문가 초청 학술회의 개최—

과총은 5월 20일 최근 국내외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常温核融合에 관한 학술회의를 한국과학기술원 존슨강당에서 개최했다. 한국물리학회를 비롯한 한국화학학회, 대한화학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대한금속학회, 대한전기학회 등 6개학회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 해외에서의 연구현황 ○ 중수소 전극 현상, ○ 핵융합이론, ○ 전기

화학적 실험 ○ 방사선측정시험 ○ 앞으로의 방향 등 6개 세손별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李祥義과학기술처장관은 常温核融合의 가능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이 실험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과학계가 세계과학계의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

超耐熱·耐蝕性합금개발

—국내외 물질특허출원 美특허 획득—

과학기술원 (KAIST) 금속연구부는 첨단新소재 개발연구에 뛰어든이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되는 超耐熱·耐蝕性의 鍛造합금을 개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KAIST 금속연구부 崔炔박사(55)팀은 78년이래 미국의 인코넬 617, 일본의 GB 2103243 A 와 같은 초내열·내식성금속을 찾아오던 중 그동안 3차례의 중간단계 실험을 거쳐 이번에 인코넬 617, 히다치 GB 2103243 A 보다 더 강한 KM 1557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텅스텐 20%, 니켈 62.2%, 크롬 15%, 티타늄, 알루미늄, 탄탈륨 그리고 미량의 탄소, 붕소, 질코늄 등을 섞어 만든 이합금은 섭씨 1천1백도에서 1천시간 견딜수 있는 超耐蝕性이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KM 1557은 국내외물질 특허를 출원하여 3월 17일자로 17년간을 유효한 미국특허(번호 4810466)가 일단 나왔다.

항공기 엔진, 석유화학공장의 각종파이프, 우주항공산업 소재등은 적어도 섭씨 6백도 이상을 견딜수 있는 超耐熱과 황산, 염산등에도 高熱부식이 되지 않는 강한 耐蝕性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소재들은 지금까지 미국産 인코넬, 日産 GB 등이 거의 독점해왔다.

KAIST는 KM 1557의 실용화를 위해 우선 50억원 규모의 시험공장을 설립하고 주로 석유화학공장용의 超耐熱·耐蝕性파이프 소재를 우선 생산할 계획이다.

인코넬 617등의 超耐熱·耐蝕性금속의 국내시장 규모는 年1백 50억원규모. KAIST는 KM 1557이 국내의 超耐熱·耐蝕금속시장은 물론 대규모 국제시장으로의 진출이 10년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